

금융공학

학과 홈페이지 :
www.business.kaist.ac.kr/kgsf/

학과사무실: 02-958-3122, 3124

▣ 개요

금융공학석사과정(Master of Financial Engineering)은 연구능력을 갖춘 국제적 금융공학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2년 동안 계량적 자산운용(퀀트 투자), 채권, 파생상품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총 54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수학 및 계량적 학문의 배경지식이 있거나 금융공학/Quant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리/계량에 집중된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합한 과정으로 Quantitative Asset Management, 파생상품 개발, 위험관리 등의 분야로 진출합니다.

- 국내 최고의 금융공학 / 계량적 자산운용 (Quant) 분야 교수진
- 금융공학 관련 15학점 필수 과목 지정으로 강화된 전문 역량 배양
- 논문 작성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분석능력과 연구능력 배양
- 한국어 강의 기본, 어학교육은 별도 실시(전문가 활용)
- 세계 금융분야 우수 대학들과 복수학위제 운영
- 연수프로그램 (Global Study Programs) 필수(2학년 1학기)
- KAIST 학생투자펀드(KSIF) 통해 연구와 병행된 투자 실습 기회 제공
 - 국내 최초 학생투자펀드로 10억원의 투자자금을 학생들이 직접 운용
 - 투자전략 개발과 트레이딩 등 자산운용의 모든 핵심 과정을 직접 수행

▣ 학술 및 연구 활동

금융전문대학원은 우리나라 금융계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금융공학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전포럼, 산학공동세미나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 금융계 및 관련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 로이터와의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산학협력 협약을 통해 구축된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실습 교육시설인 로이터 트레이딩 센터는 최첨단 A/V 시스템과 전산 및 네트워크를 통해 현업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주)코스콤과 한국 금융시장 학술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MOU 체결을 통해 구축된 코스콤금융정보센터에서는 수펙스경영관 3층에 위치한 금융정보 검색실로서, 국내 금융시장과 해외 금융시장의 실시간 시황을 검색할 수 있는 금융정보 단말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